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열린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여는 해와 달리 인파가 몰렸다. 전시장에 입장하려는 인파가 통로를 메운 채 이동하는 광경은 진풍경이었다. 전시장 입장에만 한 시간 넘게 소요되었다. 출판사 부스마다 저자 강연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나서서 책 추천도 하고, 저자 서명 같은 행사 등으로 독자의 관심을 끈다. 출판사 부스를 순례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벽찬 감정을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닐 테다. 이토록 많은 책자들을 마주하며 고무된 한 출판인은 출판사는 좋은 책 내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낮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해마다 수천 군데의 출판사에서 8만여 종의 신간을 쏟아내는데, 1년 동안 책을 1권도 안 읽는 우리나라 성인은 10명 중 6명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가용 어휘의 양이 줄고, 복잡한 사유를 할 능력이 사라지며, 뇌의 인지 능력도 감소된다. 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 시간이 없다, 책값이 비싸다, 좋은 책이 드물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에도 두 가지 큰 오류, 즉 두 가지 믿음병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편견에 집착한 맹신병(盲信病)이고, 또 하나는 호의(狐疑)에 빠진 불신병(不信病)이다. 편견에 집착한 맹신병은 그 믿음이 일반적으로 질주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전후좌우의 상황이나 합리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합리적 지혜마저도 마비시킨다. 그리하여 이 사회나 인류사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 인류사의 불행했던 과거가 모두 이 오류와 맹신병으로부터 기인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호의에 빠진 불신병은 그 어디에도 믿음을 주지 않는 전제적인 불신병이다.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일종의 선정외약증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진리 인식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고, 상당한 진인(眞人)과 성자(聖者)들까지도 모두 평가 절하한다. 석가모니불에게도 아난도와 조달아가 있었고, 공자에게도 도적이와 환뢰가 있었으며, 예수에게도 바리새인과 유대 당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첫 텔레비전 토론을 벌였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진보적인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 자기 대통령의 임기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으나 오히려 81세의 고령이란 점만 부각시켰다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거칠고 큰 목소리로 말을 자주 더듬으며 불안정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이 끝나자 후보 교체론에 불이 붙었다.

바이든-트럼프 토론을 보니, 지난 6월 25일 사상 최초로 열린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방송토론회가 떠올랐다. 시의회 의장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토론회를 시청한 소금 댓글을 보면 평소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지적, 발음이 부정확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등 스피치에 대한 평가가 많았으며,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정치인에게 말하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은 무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같은 다양한 이유를 든다. 책을 멀리 하는 사정도 제각각이다.

우리에게 '읽는 뇌'의 경이로운 여정을 알린 이는 인지신경과학자인 매리언 울프라는 사람이다. 울프는 독서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반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읽는 능력, 즉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해력, 추론, 사색과 성찰을 위한 지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독서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체득해야만 하는 생존 기술 중 하나다. 독서는 인지적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하는 활동이고 뇌에 생물학적, 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다.

인류는 독서 능력을 체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류는 책 읽는 능력을 갖춘 뒤 놀라운 지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한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독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 발명품을 통해 인간은 뇌 조직을 재편성했고 그렇게 재편성된 뇌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확장했으며 그것이 결국 인지 발달을 바꿔 놓았다.' (매리언 울프 '프루스트와 오징어') 내 뇌가 읽기 능력을 갖춘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지 30만 년이 흘렀다. 30만 년의 기트머리에서 문자가 나오고 책이 나올 때까지 인류는 문자나 책 없이 살았다. 인류가 점토판, 거북의 등껍질, 바위, 양피지, 파피루스, 죽간 등에 문자를 기록한 건 겨우 6천 년 전이고, 책은 그보다 한참 뒤에 출현한다. 원시인의 뇌에는 독서를 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세기에 걸쳐 책과 친해지

과정은 거치고 읽는 학습을 반복하면서 인류의 뇌에는 책을 읽는 회로와 배선이 만들어졌다.

문자를 발명해 읽기에의 걸음마를 시작한 수메르인 이후 쿠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까지 인류는 '읽는 뇌'를 만드는 데 장구한 세월을 보낸다. 인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며 뇌에는 큰 혁신과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책 읽는 뇌의 시대에서 이미 디지털 뇌로 전환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매일 디지털 화면이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폭발적인 정보에서 또 다른 정보로 이동한다.' (매리언 울프 '프루스트와 오징어') 책을 읽고 사색하는 대신 디지털 기기에서 검색하며 정보를 손에 넣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깊은 독서와 사색 능력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중이다.

책이란 문자로 엮인 생각의 문치, 사유의 덩어리, 혹은 서사의 집체체이다. 인류는 책과 친해지고 '읽는 뇌'를 도약대 삼아 놀라운 진화상의 성과를 거둔다. 인류가 책과 답을 찾고 멀어진 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그 미래가 낙관적일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위기는 위기가 위기임을 모르는 데서 시작한다. 출판업은 지식을 생산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산업이다. 지금 출판업은 위기다! 만년 적자에 빠진 출판업의 위기는 서점과 인쇄소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불신(不信)과 맹신(盲信)

국이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이 불신병에 들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진행된다. 불신병은 반드시 불행을 자초한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현실도 깊이 살펴보면 그 기저에 '맹신'과 '불신'이라는 두 가지 병이 깔려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벗어나면 합의 통일은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천명을 경외하고, 대인을 경외하고, 성인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내역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인은 천명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대인도 가벼이 여기고, 성인도 업신여긴다"고 했다. 이것은 천명도 대인도 성인도 불신하는 것이며, 이는 불신병의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맹신병과 불신병에 감염되면 또 다른 병을 동반한다. 그것은 어떤 합리적 사실에 대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전인수(我田自收) 식으로 긍정·부정의 단정부터 내려놓고, 그와 같은 편견에 집착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동원하거나 결부시켜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는 안타까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바른 가르침이나 충고가 통하지 않고 법문도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굳게 닫아 버린다. 이병으로부터 헤어나기 전에는 한 치도 더 발전하게나 성숙할 수 없으며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 병은 스스로의 큰 뇌우침, 크게 분발하는 자력과 주위의 타력이 함께 하여야 벗어날 수 있다. 어떤 병이든 스스로 병임을 인정하고 그 병에서 헤어나고 하면 길이 보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라 참으로 깊이 주의해야 한다.

맹신이나 불신은 사실 그 뿌리가 하나이며, 한쪽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다른 한쪽에 대한 강한 맹신을 낳고, 한쪽에 대한 강한 맹신이 다른 한쪽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낳는다. 즉 맹신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맹신을 낳는다. 그 악순환은 끝이 없어서 이것이 원죄(原罪)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경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병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양극단으로 치달는 불행을 낳는다. 너 아니면 나, 나 아니면 너, 이쪽 아니면 저쪽, 저쪽 아니면 이쪽, 즉 극단적 흑백 논리로 갈라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쪽은 잘해도 못해도 믿고, 저쪽은 잘해도 못해도 불신해서 모두 긍정, 모두 부정으로 단정해 버리니, 어떻게 합리나 중도나 합의가 설 땅이 있겠는가. 이쪽 되면 이쪽은 절대신(絕對善), 저쪽은 절대악(絕對惡)이 되어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이처럼 양 극단으로 빨려들지 않고 맹신병, 불신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어느 한쪽에 편착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믿는 곳에서도 믿을 수 없는 요소를 발견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셋째 믿음을 주지 않는 곳에서도 믿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끝으로 넷째 어느 곳에서도 진실성과 합리성과 실용성과 효율성만을 찾아 그 비중에 따라 믿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 처신해야 한다. 오히려 내가 믿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일수록 더 냉엄하게 불신 가능성의 요소를 찾아내어 철저히 이를 보충해 가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나아가 아무리 자(自)·타(他)·환경 등이 불신할 만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능동적으로 개선해 자·타·환경 등을 믿을 수 있는 조건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참으로 경세의 경륜을 가진 자들이 할 몫이다.

정치인과 말하기 능력

기로 하지만, 정치는 그야말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뛰어난 말하기 능력은 시민들로부터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리더로 인정받게 해준다. 자신이 말의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훈련을 통해 교정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넘어설 나뭇의 기법을 완성해야 한다.

그대 그리스스의 명연설가로 꼽히는 데모스테네스는 어릴 적 지독한 말더듬이였고, 기관지가 약해서 말을 몇 마디만 크게 해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연습을 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 입 안에 자갈을 넣고 말하기 훈련을 했다고 한다.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달려 오르는 훈련을 하고, 말할 때 한쪽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천장에 칼을 매달아 어깨가 들리면 쥘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독한 훈련을 했다고 한다.

데모스테네스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명연설가라면 키케로는 로마를 대표하는 명연설가였다. 기원전 63년 키케로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선출됐는데, 그 무렵 카틸리나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립하려 했다. 키케로는 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원로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틸리나의 음모를 폭로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이 키케로의 명연설로 꼽히는 '카틸리나 탄핵 연설'이다. 그의 연설은 카틸리나와 그의 추종자들을 고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키케로의 연설 덕분에 로마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는 로마의 구원

자로 칭송받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정치인이라면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처럼 명연설가는 못되더라도, 그들이 말로써 어떻게 대중을 설득했는지 연구하고, 익힐 필요가 있다.

말을 잘하는 것의 첫번째 핵심은 '정책 전달력'이다. 전달력이란 복잡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설득력이다. 의장은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이다. 설득력 있는 스피치는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셋째, 신뢰 구축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의장은 광주시민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곧 시의회의 신뢰도로 연결된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의장의 침착하고 명확한 스피치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넷째, 공감 능력 향상이다.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피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의 감정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스피치 능력이 뛰어나고 해서 정치인의 모든 자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피치 능력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데 필수다.

社說

메세나 최하위 극복 위한 예방 프로젝트 절실

광주는 역사적으로 명실상부한 예방이 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중심도시 또는 문화수도라 불린다. 예방임을 뒷받침할 사료와 문화는 차고 넘쳐며, 이에 연속선상에서 노무현 정권시절 정부가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한 도시의 문화 수준과 그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은 전문만을 갖고는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화라는 이름에 포함된 모든 행위와 사업, 심지어 행정까지도 예산과 지원이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광주의 메세나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탓에,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다양한 문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메세나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15대 기업이 지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서울(37.6%)의 12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지원액수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면 광주는 6억원 정도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1.0%)과 울산(3.2%)은 광주보다 3배, 10배의 지원을 받았다. 심지어 광주는 강원(1.6%), 전남·전북(1.5%), 경남·경북(3.4%) 등 두 단위 지자체보다도 기업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가 늘어났는데, 광주는 오히려 전년(0.5%)보다 감소했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은 자체선정-전문기관과의 협업-예술단체 요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 단체 및 기관들은 대기업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전문가들은 메세나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인권도시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서야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의회가 일부 시민들의 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하반기 교육 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폐지되지만 벌써부터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례 폐지안에는 1만388명이 서명했고 이 가운데 8207명이 유효 청구인으로 인정돼 일단 조건은 충족했지만 광주시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청구인들은 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최근 5년간 광주에서만 교권 침해 사례가 291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이전 전국 1, 2

위를 자랑하던 '실력 광주'가 이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들어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와 시민단체들도 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되 교권과 교영을 이루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가 소관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조례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지하기보다는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 인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無等鼓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 표어를 들으면 심한 저항감을 느꼈다고 했다. "무엇을 위해 빠르게 살고 있나"고 반문한 법정 스님은 "더 높이 더 빨리 뛰어봤자 제자리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며 지금 이 순간을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2024파리올림픽'이 26일 개막한다. 법정 스님이 반감을 드러냈던 말은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랭이 1894년 채택한 올림픽 표어다. 더 정확

'코로나19'라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대재난도 세상을 바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도쿄올림픽은 2021년 치러졌다. '다함께'의 추가를 건의했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유대감을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의지를 북돋는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첫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가 없는 올림픽이다. 유럽에서 대회가 열리면서 야구가 제외됐고, 축구

땀방울의 가치

는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루지 못했다. 여자 핸드볼만 구기 종목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면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 선수단이 꾸려졌다. 올림픽 열기가 예전만 못한 이유이다.

올림픽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수많은 스포츠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경기를 실시간으로 골라보는 세상이 됐다. 전쟁 같은 경쟁보다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세상은 달라졌다. 그래도 땀방울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